

라오스 원조동향

I. 일본의 대라오스 지원

- 일본은 2003 ~ 2004년도 주재국에 84백만 불을 지원하여 최대 공여국으로 일본 NGO 또는 국제 NGO, 민간기업과 연계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원조를 실시하고 있다. 대라오스 주요 지원분야는 인적자원개발(단·장기연수, 장학사업), 인프라구축(도로망확충, 교량건설 등) 보건분야 등이다.
- 금년도 4월까지의 일본의 주요 원조동향은 아래와 같다.

1. 산업인프라 분야

- 힌업지역 교량 건설
 - JICA는 13번 도로(왓타이공항 → 외곽지역)가 연결되는 교통난이 심한 힌업지역에 새 교

량을 건설할 계획이며, 통신교통체신건설부와 교량 건축을 위한 조사를 위한 협정식을 갖고 JICA 전문가들을 파견, 8월부터 교량 건축을 위한 조사 및 설계에 착수하여 2007년 말 완공 예정이다.

- 캄무안주에 Community center 건립
 - 캄무안주 인본군 송홍마을에 일본에서 진출한 민간기업 Oji Lao Forest Plantation에서 30만불의 예산으로 5개의 게스트 하우스, 휴식공간, 미팅 및 교육실, 박물관, 양호실이 있는 회관을 건립하였으며 박물관에는 라오와 일본 출판물들이 전시될 예정이다. 동 센터에서는 어린이들의 미술활동, 일본어, 영어교육이 실시될 예정이며 동 센터는 마을주민이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게스트 하우스는 일본이나 라오 정부관리들의 이용이 가능하다. 동 회사는 이 지역에 도로건설, 전기보

급을 하였으며 향후 마을 발전을 위한 중소기업 운영기금을 조성하여 빈곤퇴치를 위한 마을 경제 발전도 지원할 계획이다.

2. 교육훈련 분야

■ 학교교복 지원

- 일본은행(도쿄미스비시)은 비엔티엔에 6,000벌의 여학생 교복을 지원하며 동 지원은 국가 재활센터에 기증되어 사이타니, 박음과 상통 지역의 학생들에게 배포되고 각 복지시설 및 농촌 마을에도 지원될 예정이다. 금번 지원은 동 재활센터에서 활동하고 있는 일본재난구호협회 주선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3. 공공행정 분야

■ 법제정비 지원

- 일본과 라오스가 법제정비 프로젝트에 대한 평가회를 개최한다. 이번 합동 최종회의는 법무부, 대법원, 검찰 및 일본측 대표자들이 참석하였으며 일본정부는 JICA를 통하여 주재국 법무부와 1998년부터 법제개선 분야를 지원하여 왔다. 동 평가회는 그간 실시한 프로젝트의 적정성, 효과성, 효율성, 영향력, 지속성의 5개 카테고리에 대한 결과와 수행방법, 관련기관을 평가한다. 평가기준은 OECD의 DAC 원칙에 의거하여 JICA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에 맞추어 시행된다.

4. 의료보건 분야

■ 의료물류센터 건립

- 일본은 라오스 북부 및 남부지역에 의료물류센터 건립을 지원함. 우돔사이지역에는 81천불, 참파삭에 78천불을 투입하였다. 민간분야 차원 생명보호 프로젝트 무상원조의 일환으로 5개월간에 걸쳐 건립되었다. 동 프로젝트는 약품과 의료장비를 알맞는 조건에서 보관하므로써 보건의료서비스 개선, 의약품 및 의료설비의 효과적인 관리 능력 배양이 목적이며 동 의료물류센터는 두 지역 뿐만아니라 인근지역에서도 활용이 가능하다. 일본은 라오스 전역을 대상으로 말라리아 센터, 병원, 보건소 건립을 지원한 바 있다.

■ 병원개보수 지원

- 일본은 10개의 지역병원과 비엔티엔시내의 수도공급시스템을 지원할 계획이며 이는 10개 지역병원의 개보수와 수도의 수도공급시스템 개선 지원이 포함된다. 첫 번째 단계로 현재 카오레오와 치나이모지역의 수도시설을 비엔티엔 중심까지 연장 3.6억불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며 10개 지역병원의 의료기구 및 시설 확충을 위하여 13억불을 지원 예정이다.

4. 기타

■ 홍수피해 농민들에게 미곡 지원

- 일본정부, 노동복지부 및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300백만엔 상당의 쌀7,900톤을 기증하였다. 2004년 시작된 KR1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작년 홍수 수해를 입은 농민들을 대상으로 비엔티엔시를 비롯하여 17개지역에 지원되며 1994년 이후 일본은 118,000톤(3,776백만엔)의 식량을 원조했다.

■ 일본 민간기업 국립재활센터에 휠체어 지원

- 일본 민간기업인 니치카카우회사(At-home nursing company)가 국제 NGO인 Asian Development with disabled People(ADDP) 요청으로 20만불 상당의 200개 휠체어를 국립재활센터에 기증했다. 이는 노약자, 장애인들의 재활 및 독립적인 사회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각 지역으로 보내져 장애인들에게 직접 배포될 예정이다.

■ 민중 보호 프로젝트

- 일본은 민중 보호프로젝트로 49천불상당의 의수족을 지원했고 동 지원은 국립재활센터를 통해 전쟁상해, 소아마비, 교통사고로 인한 장애인들에게 지원될 예정이다. 또한, 루앙프라방에 86,100불을 지원하여 4700명 각 성제 중독자를 위한 재활센터를 내년 완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재활은 3개

월 과정으로 1회에 50명 중독자를 대상으로 재활교육이 가능할 것이며 동시에 농업 등의 직업 재활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루앙프라방에는 6,200명의 마약 중독자가 있고 해마다 HIV감염자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2001년 라오 정부는 135명의 마약소지, 인신매매 등 마약사범을 사형시킨 바 있으며 2006년에는 146명으로 늘어났다. 라오스 정부의 마약근절 노력은 아세안과 중국과 협약을 맺어 2015년까지 완전 퇴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

■ 일본 세계은행을 통하여 라오스 지원

- 일본은 세계은행을 통하여 28.4백만불을 4개 빈곤퇴치 프로젝트에 지원할 계획이다. 동 지원은 현재 진행하고 있는 남튼 II(수력발전소 건립)프로젝트와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위하여 쓰여질 계획으로 이중 15백만불은 캄보디아 전기수출을 위한 사란완지역에 전기공급 송전탑 설치에 투입되고, 3백만불은 정부 예산집행, 감사, 보고 개선에 쓰여질 것이다. 기타 10백만불은 정부의 예산집행관련 능력향상을 위하여 집행되어질 것이며 46.9천불은 빈곤퇴치를 위한 교통시설 개선에 사용되어질 것이다.

II. 스웨덴의 대라오스 지원

- 스웨덴은 기존 지원국을 70개에서 33개국으

로 축소하기로 하였으며 대 라오스 원조도 단계적으로 지원을 축소해 나갈 방침이다.

- 스웨덴 정부는 ODA 지원 범주를 빈곤퇴치, 효과적인 원조, 수원국의 인권보호를 통한 민주화 및 선정 지원, 기타 스웨덴의 비교우위가 있는 분야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 스웨덴은 지난 30년간 라오스 원조를 실시하여 왔으나 라오스 빈곤의 주요 원인이 정치와 인권 보호 수준이 낮아 기인한다고 판단함에 따라 향후 2-4년간 단계적으로 지원을 축소할 계획이다.
- 2008년까지 스웨덴의 대라오스 지원 주요 분야로는 라오스 재정부 연수실시, 국가 통계청 지원, 교육분야 지원, 라오 국립대 지원이 있다.

Ⅲ. 중국의 대라오스 지원

- 중국정부는 최근 경제발전에 힘입어 점차적으로 ODA를 증대시키고 있으며 양자 채널을 통하여 무조건으로 공적 지원을 실시해왔다. 지원 분야로는 기자재 지원, 인적자원 개발, 기술지원, 무이자 차관, 저이자 차관 등이 있다.
- 대 라오스 지원은 국가 사회경제개발 계획에

부합하는 주재국 자립 능력 개발 지원 분야와 투자 무역협력에 중점을 두어 왔다.

- 중국은 그간 문화, 보건, 인적자원개발 뿐만 아니라 국립문화홀 건립, 파독사이 공원건립, 루앙프라방 주립병원 건립, 남고 수력발전소 건립, 방비엥 시멘트 공장 건립 등을 지원하여 왔으며 무상으로 60만불을 마약재활센터에 지원하기도 했다.
- 중국의 대라오스 지원의 경우, 무상원조와 경제투자의 경계가 모호한 실정이다.

Ⅳ. 프랑스 생활용수 공급을 위한 훈련센터 지원

- 프랑스는 2.7백만 유로를 투입하여 생활용수 공급을 위한 훈련센터를 건립한다. 동 프로젝트는 라오스 정부가 프랑스 정부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수자원개발관리 및 안전한 식수보급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라오스 전역의 생활용수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킬 계획이며 현재 20명의 강사가 배정되어 있다.

V. 미국 보건부 산하 미타팍병원 지원

- 미국에 본부를 두고 있는 REI(US-based Resource Exchange International)는 보건부 산하 미타팍에 인적자원 개발을 지원키로 합의했다. 동 프로그램에는 소아과 종사자 능력개발 및 의학관련 영어교육, 소아환자 다루는 법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의료관계자들이 미국 현지로 보내어 연수를 시킬 계획이다.

VI. EU 북쪽지역에 35개학교 지원

- 유럽연합은 북쪽지역 풍살리, 루앙프라방, 루앙남타 3개주에 35개의 초등학교 건립하여 기초 교육을 지원키로 했다. 동 프로젝트는 북쪽지역에 기초 교육개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100개 초등학교 건립사업의 일부이다. 동 프로젝트의 예산은 라오정부가 40만유로, 유럽연합이 6백만 유로를 부담하여 2004-2010년까지 추진될 예정이다.
- 동 초등학교는 상기 3개주(풍살리주, 루앙프라방주, 루앙남타주) 9개군(남타군, 비엥포카군, 룡군, 촘펏군, 비엥감군, 크후아군, 삼판군, 마이군, 옷투군)에 건립될 예정이다. 동 군의 취학율 및 교육환경은 열악한 수준이고 교실 역시 부족한 실정이라서 2007-2008년까

지 95개 교실을 더 확장할 계획이다. 소수종족 430개 마을 6,000명의 어린이가 수혜 대상이고 교사 1,200명의 훈련도 포함된다. 또한 성인 10,000명을 대상으로 한 비정규 교육과정 지원도 포함된다.

- 마을단위로 각 35만유로를 지원하여 주민들이 설계에서 시공까지 참여하여 보다 적극적인 협력체계 유도과 동 사업에 대한 관심을 제고할 예정이다.

VII. 독일 우돔사이주 학교 중퇴자 지원

- 경제적인 문제로 학교교육을 받지 못하는 우돔사이주 500명 학교 중퇴자를 위해 독일 GTZ에서 1.5백만불 예산으로 직업훈련원을 건립할 계획이다. 기존에 있는 직업훈련학교의 교육환경은 열악할 뿐만 아니라 1200명 학교 중퇴자 중 60명만이 가축사육, 농업, 기술 등 취업을 위한 교육을 받고 있었다. 새로 건립될 직업훈련 학교의 규모는 10개동에 각 교실 6-7개규모로 한 교실에 40명을 수용할 수 있다. 그동안 독일은 라오스에 지속적으로 직업훈련분야를 지원하여 왔다.

VIII. UN Habitat 루앙프라방에 급수시설 지원

- UN Habitat는 루앙프라방주 씨엥눈, 뻑칸, 팍배드, 팍또마을에 식생활수 공급할 수 있는 파이프라인 설치하여 6,400 여명이 농업용수, 가축사육, 생활용수로 사용하는 등 수혜를 얻었다. 급수시설은 용천수를 활용 중력으로 이용하였으며 예산은 UN Habitat 25만불, 해당

군에서 10만불, 식수공급 기관에서 15만불이 투입되었다. 물공급은 국가경제와 빈곤퇴치를 위한 4대 우선과제 중 하나이다. 주재국내 급수시설 지원은 ADB에서 총 300백만불을 투입하고 있고(50만불-능력함양, 250만불- 남중부지역 물공급 시설 지원) 캐나다 등이 모니터링 및 사업 수행에 참여하고 있다.

[자료: 주라오스대사관]